

Title: the book of Titus – Sermon 3 Sermon Notes

Scripture: Titus 1:10-16

Date preached: January 23rd 2022

Scripture: Titus 1:10-16

10 For there are many insubordinate, both idle talkers and deceivers, especially those of the circumcision, **11** whose mouths must be stopped, who subvert whole households, teaching things which they ought not, for the sake of dishonest gain. **12** One of them, a prophet of their own, said, “Cretans *are* always liars, evil beasts, lazy gluttons.” **13** This testimony is true. Therefore rebuke them sharply, that they may be sound in the faith, **14** not giving heed to Jewish fables and commandments of men who turn from the truth. **15** To the pure all things are pure, but to those who are defiled and unbelieving nothing is pure; but even their mind and conscience are defiled. **16** They profess to know God, but in works they deny *Him*, being abominable, disobedient, and disqualified for every good work.

10 복종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므로. **11**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수입을 위해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신자들의 가정을 온통 뒤엎고 있습니다. **12** 바로 그들 가운데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테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먹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다.” **13**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정 없이 책망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14** 유대인의 신화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시오. **15**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지만 더러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더러워져 있습니다. **16**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밍살스럽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선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Review

Last time we began to examine what Paul wants Titus to do. Remember that Titus and Paul had travelled to Crete together to share the gospel message.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they had enjoyed considerable success. Now there were many people across the island who wanted to continue their walk with Christ. Then, just as today the means that God has set up to encourage and support Christians is the church. There is never any notion in scripture of Christians living and worshipping alone or outside of a believing community.

It was at the point that churches needed to be established and pastored that Paul left Crete. We do not know why he left but we do know that Titus would remain as his representative.

Titus it seems was a bold and courageous young man. He would need all his strength because the people of Crete had a bad reputation. Paul however had great confidence in him. He trusted him to do things well, and as extra encouragement Paul wrote to him to instruct him on what to do.

The first thing he was to do was to appoint elders in every city. As I said last time he is referring here to the leaders in the church, or the first of only two offices mentioned in scripture. In the New Testament these leaders are referred to as elders, bishops, overseers or pastors. Four titles but essentially the same rank within the church. Paul knew that the importance of this position meant that only the right people must be selected. In the secular world maybe a company or government can get along with a flawed leader. Flawed leaders however are a disaster in the church. The church requires leaders who meet God's standards. So Paul carefully lays out the qualifications that must be met by elders in the church. Let us briefly review them now.

An elder must be a man. He is to be a respected member of the community and have nothing against which people can accuse him. If he is married he should be a loyal and devoted husband. His focus and attention should be exclusively upon his wife. If he has children he should bring them up to know and love the Lord. They should be believers who respect his authority and not be wild or rebellious.

In terms of the character or disposition of an elder they should not be strong willed. They should not be selfish, arrogant, prideful or overbearing. They should be patient and not quick tempered. They should also not be violent or aggressive. If they drink they should drink in moderation and definitely not be drunks or mastered by drink. They should not be greedy or covetous. They should be hospitable and welcoming to others. They should love what is good and pleasing to God. They need to be sober-minded and sensible. They should be men who can think deeply about things and make wise biblically based judgements. Finally they are to be just and fair with others, holy before God and fully self controlled.

That's a demanding list of qualifications. But the reason why God has set such high standards is because the job elders have to do is so crucial. The Puritans often spoke about pastors as being doctors or physicians of the soul. When you are sick you visit your doctor and he or she helps cure your physical injuries or sicknesses. A pastor ministers to the sickness in a person's soul. They tend to problems that medical doctors cannot address. There may be many different treatments that a medical doctor may use. They might prescribe various drugs, physiotherapy, speaking to a psychiatrist or just resting at home for example. The pastor by contrast has only one treatment for all the sickness of humanity. The treatment is the gospel message. Jesus Christ is the one and only cure to all our ills. God's truth has the power to dramatically impact and change lives. Other jobs maybe important but nothing on earth is more important or pressing than the gospel message. Therefore it is not something to ever be taken lightly or without consideration. It is a great honour and privilege to serve God and one all pastors or elders should take seriously. It will be Titus' job to find men that meet these high standards.

In today's passage Paul will explain why pastors are so vital and what tasks they have to undertake.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디도와 바울이 복음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함께 그레데로 여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섬 전역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걷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수단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또는 믿는 공동체 밖에서 살고 예배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레데를 떠난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되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가 왜 떠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Titus가 그의 대리인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티투스는 대답하고 용감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크게 신뢰했습니다. 그는 그가 일을 잘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바울은 추가적인 격려로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는 여기에서 교회의 지도자들, 즉 성경에 언급된 두 직분 중 첫 번째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러한 지도자들은 장로, 감독, 감독자 또는 목사로 언급됩니다. 네 개의 직함이지만 본질적으로 교회 내에서 같은 계급입니다. 바울은 이 직책의 중요성이 올바른 사람들만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회사나 정부가 결합 있는 리더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

나 결함이 있는 지도자는 교회에 재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이 갖추어야 할 교회의 자격을 주의 깊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지역 사회의 존경받는 구성원이어야 하며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결혼했다면 그는 충실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의 초점과 관심은 전적으로 그의 아내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자녀가 있다면 양육하여 주님을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거칠거나 반항적이지 않은 신자여야 합니다. 장로의 성품이나 성품은 의지가 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거나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성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마실 경우 적당히 마셔야 하며 술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탐욕스럽거나 탐욕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냉정하고 현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성경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히 자제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자격 목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높은 기준을 두신 것은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종종 목회자들을 의사나 영혼의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아플 때 의사를 방문하면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영혼에 있는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들은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다양한 약물, 물리 요법을 처방하거나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거나 그냥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목사는 인류의 모든 질병에 대해 단 한 가지 치료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삶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직업도 중요할 수 있지만 지상에서 복음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거나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큰 영광이며 특권이며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남성을 찾는 것이 타이터스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목회자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10 For there are many insubordinate, both idle talkers and deceivers, especially those of the circumcision, 11 whose mouths must be stopped, who subvert whole households, teaching things which they ought not, for the sake of dishonest gain.

There was a very good reason why Titus needed to appoint good elders that met God's standards.

The reason was to combat the large number of problem teachers and leaders that existed in the Cretan church. Now this may strike us a little strange. Paul remember had only recently left Crete so we might wonder why in so short a time all these problem leaders had arisen. The answer to this is very simple. No sooner has God sown the good seed of the gospel than Satan comes and plants his lies. Make no mistake, Satan is a cunning and clever enemy. He knows that once the church is established and strong it will be harder to infiltrate. So whilst it is young and somewhat disorganised it is easier to place his people inside.

So the church in Crete, just as it does today needed good strong men who love the Lord and stand firmly upon His Word. Let's look at what Paul says about these problem leaders. The first thing he tells us about them is that they are **insubordinate**. This is a word that is not frequently used today, but one place you will hear it used is in the military. If a soldier fails to carry out a lawful order

given by a superior officer he is charged with insubordination. He is guilty of failing to obey or submit to his rightful authority. So Paul is telling us that in Crete there were leaders who were rebellious and who rejecting or disobeying authority. Now this authority may mean the men (Paul and Titus) that God has placed in charge or that they were disobeying God's Word.

They were also **idle talkers**. This is the Greek word *matailogos* (mat-ah-yol-og'-os). This is translated in a variety of ways in different English bibles. Essentially what Paul is saying is that they are teaching something that is empty or without God's power to save. They were not teaching people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Sadly we see many such men still in the church today. From the pulpit they speak confidently and well. They can impress, entertain, excite and even inform but their words do not bring a person closer to God. Perhaps even worse than just being an idle or vain talker is being a **deceiver**. These men were guilty of teaching people the wrong things. Now obviously it is a terrible thing to deceive people in church. Men who abuse their position will face God's wrath. But I want to remind you that you should not just be a passive receiver in church. You should not just sit and unquestioningly take in what you are told. When a pastor or bible teacher speaks you should check what they say and teach against scripture. If what they say goes against scripture you should challenge them on it.

These men Paul tells us belonged to the **group of the circumcision**. Paul is telling us here that these men were Christians from a Jewish background. We have spoken about this group before when we studied Acts. They believed that in order to be saved one had to be circumcised, and follow the Jewish ceremonial laws. Essentially what they were teaching was Jewish legalism. Their model for salvation was Jesus plus works (following the law). We know that the true formula is Jesus plus nothing else. However as evidence of our salvation we ought to be seen to be doing good works.

The great danger that these men posed was that they were disrupting the church and causing chaos. Whole families were being impacted by their lies and false teaching. Therefore Paul was firm, such men had to be stopped or literally “shut up” from speaking.

Finally Paul tell us what drove these men. They were not motivated by presenting the truth, or by wanting to transform lives. They were motivated by greed. The King James says their motivation was “filthy lucre.” Apparently the love of money was a particular issue on Crete. According to the Greek historian Polybius (208-125 BC) the Cretans had a reputation for loving money. I don't suppose they were much different to most people throughout history.

티투스가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는 훌륭한 장로들을 임명해야 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레타 교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 교사들과 지도자들과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최근에야 그레테를 떠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모든 문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일어났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리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의 거짓말을 심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교활하고 영리한 적입니다. 그는 교회가 일단 세워지고 강해지면 침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다소 무질서한 동안 그의 사람들을 내부에 배치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레테 교회에는 오늘날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강하고 선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지도자들에 대해 바울이 말한 것을 봅시다. 그가 그들에 대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군대에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군인이 상급 장교의 합법적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불복종으로 기소됩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테에 반역하고 권위를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바울과 디도)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게으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mataiologos(mat-ah-yol-og'-os)입니다. 이것은 다른 영어 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됩니다. 본질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공허하거나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강단에서 그들은 자신 있고 잘 말합니다. 그들은 감동을 주고, 즐겁게 하고, 흥분시키고 심지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말은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냥 게으르거나 헛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기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교회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저 앉아서 당신이 들은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나 성경 교사가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을 확인하고 성경에 반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어긋난다면 그것에 대해 도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할례파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이 그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 의식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가르친 것은 유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의 구원 모델은 예수와 행위(율법을 따름)였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공식이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증거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기한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이 교회를 교란시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들의 거짓말과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확고했고, 그런 사람들은 말을 멈추거나 문자 그대로 “입 다물”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이 이 사람들을 몰았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진리를 제시하거나 삶을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King James 는 그들의 동기가 “더러운 수익”이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돈에 대한 사랑은 그레데에서 특별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우스(기원전 208-125 년)에 따르면 크레타인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 One of them, a prophet of their own, said, “Cretans *are* always liars, evil beasts, lazy gluttons.” 13 This testimony is true. Therefore rebuke them sharply, that they may be sound in the faith

When I first came to Korea many years ago I was struck by what Koreans said to me when I told them I was from the UK, and England in particular.

Almost the first thing they would say was, “Ah English gentleman.” I don't know where this stereotype originated. Maybe there was a popular TV drama or movie that promoted this idea. Naturally I was quite happy to accept this title because I think it was meant as a compliment.

They were implying that I was a man of good and courteous manners. This then is an example of a positive national stereotype. Stereotypes are of course not always positive.

Here Paul tells us about a very negative stereotype held against Cretans. Paul is speaking here about the Cretan poet and prophet Epimenides. He lived in the 6th century BC and had written a poem that stated that, **Cretans *are* always liars, evil beasts, lazy gluttons.** It was a sentiment later echoed by another Cretan poet called Callimachus (305-240 BC). Today we would point out that saying such things can be damaging and hurtful. We should be careful not to generalize. Not all Englishmen are

gentlemen just as not all Cretans were liars or lazy gluttons.

Paul however is pointing this out though to emphasise to Titus that this was a national character defect. He is to prepare himself to address this issue. The people of Crete would need a strong and direct rebuke. Any other kind of approach would be unlikely to work. The purpose of this rebuke is to bring them from the darkness into the light.

몇 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인들에게 내가 영국, 특히 영국에서 왔다고 말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거의 가장 먼저 한 말은 "아 잉글리쉬 젠틀맨"이었습니다. 이 고정 관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디어를 홍보한 인기 있는 TV 드라마나 영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칭찬의 의미인 것 같아서 이 칭호를 수락하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선하고 예의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국가 고정 관념의 한 예입니다. 물론 고정 관념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레데인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크레타의 시인이자 예언자 에피메니데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6 세기에 살았으며 크레타인은 항상 거짓말쟁이, 사악한 짐승, 게으른 대식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것은 후에 Callimachus(305-240 BC)라고 불리는 또 다른 크레타 시인에 의해 반향된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해롭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크레타인이 거짓말쟁이나 게으른 탐식가가 아니었던 것처럼 모든 영국인이 신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국가적 성격상의 결함임을 디도에 강조하기 위해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강력하고 직접적인 책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접근 방식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망의 목적은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4 not giving heed to Jewish fables and commandments of men who turn from the truth.

As I said before the men causing trouble within the Cretan church were men from a Jewish background. One of the problems was that they were strongly drawn towards Jewish myths and fables. These were being promoted over and above the truth of the gospel. It really all boiled down to the issue of syncretism. Syncretism is the idea that one can mix or blend together different religious ideas or practices.

Let me give you a real life example to explain syncretism in practice. I was approached one time by a work colleague who wanted to ask me about her Roman Catholic friend. Her friend she said was a devout Catholic who regularly attended church and was a strong believer. However she frequently visited a shaman, a mudang because she desired to know about the future. My friend wanted to know if this was a problem. I have to confess that I was incredibly shocked. The bible is quite clear that we are to have nothing to do with fortune tellers or other occult practices. How could any bible believing Christian think it was an acceptable thing to do. But then I realised that she was a syncretist. In her mind she had rationalised the idea of these two religious practices being able to operate alongside one another. This is what had happened on Crete.

In this case they were teaching that in order to be holy you should avoid certain foods. This was a mixing of Jewish legalism with the gospel message. The danger of course with such teaching is that it draws people away from the truth and encourages them to have faith or believe in falsehoods.

내가 전에 말했듯이 그레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유대인 배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이 유대 신화와 우화에 강하게 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복음의 진리를 넘어 더욱 더 널리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모두 혼합주의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혼합주의는 서로 다른 종교적 생각이나 관행을 혼합하거나 혼합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혼합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실제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은 직장 동료가 나에게 로마 가톨릭 친구에 대해 묻고 싶어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그녀의 친구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확고한 신자인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래를 알고 싶어 무당인 무당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내 친구는 이것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나는 내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점쟁이나 다른 신비로운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제서야 나는 그녀가 싱크레티스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두 종교 행위가 서로 나란히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리화했습니다. 이것이 그레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경우에 그들은 거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와 복음 메시지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르침의 위험은 그것이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가지거나 거짓을 믿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15 To the pure all things are pure, but to those who are defiled and unbelieving nothing is pure; but even their mind and conscience are defiled.

To understand what Paul is saying here we need to remember what he is addressing. He is talking about people who are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clean and unclean foods. Under Jewish law certain foods were considered clean and other foods were considered unclean. The legalists in Crete wanted to continue this idea even though Christ did away with these distinctions. Christians, those who are now pure in Christ are free to eat and drink as they wish. We believe that whatever God created is good and can be enjoyed with thanksgiving.

So we eat whatever foods take our fancy. We can consume alcohol in moderation. We can enjoy intimacy with our spouse.

We can do all these things without fear that it makes us unclean or unholy. However to those who want to make these things seem wrong or unholy they can wrongly be made to seem impure. These people are placing man made restrictions against these good God given things.

Please note that Paul is not saying that Christians are free to do whatever they want because now all things are pure. We cannot make pornography, sexual intimacy outside of marriage or the taking of illegal drugs pure, they always remain sinful. He is referring to things permitted by scripture but forbidden by legalists.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어떤 음식은 깨끗한 것으로 간주되고 다른 음식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레테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구분을 없애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친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럽거나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두려움 없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옳지 않거나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결하게 보이도록 잘못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것들에 대해 인간이 만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외설물, 혼외 성관계, 불법 약물 복용을 순수하게 만들 수 없으며 항상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은 허

용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금지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 They profess to know God, but in works they deny Him, being abominable, disobedient, and disqualified for every good work.

Paul closes here by condemning these men harshly. The words he uses are strong but fair. Titus needed to know these things in order for him to be able to deal with these people. If anyone sets themselves up as a representative of Christ and then deceives others they deserve condemnation. One of the issues that would be difficult for Titus to deal with is that they talked like Christians. They would from the outside appear to be good godly men. We see a similar thing today. Most of the followers of cults like the Church of latter day Saints (Mormons) or the Jehovah's Witnesses use Christian terms or words. They outwardly profess to know God. To hear them speak you might be mistaken into thinking they really know God. The truth is that just like the men in Crete they do not really know God.

So Paul advises Titus to go beyond what they say and look at the fruit of their works. He tells Titus three things about these men. Firstly, that they **abominable**. This means that they had become polluted or corrupted by idolatry. Secondly, that they are **disobedient**. This means they will not submit to those rightfully placed in authority over them. Finally, they are **disqualified**. This is the Greek word *adokimos* (ad-ok'-ee-mos). It was used in a variety of ways. It was used to describe a counterfeit coin. A coin that was not genuine. It was also used to describe a soldier who was cowardly and who failed in battle. It was also used as we might use it today to talk about someone who fails to meet a certain standard and cannot get a particular job or position. These men for all the reasons we have talked about do not meet God's standards. For this reason they are not fit to serve the church in any way and are to be removed.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혹하게 정죄함으로써 여기에서 끝맺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말은 강하지만 공정합니다. Titus 는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우고 남을 미혹하면 정죄함이 마땅하리라. 티투스가 다루기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것을 봅니다. 후기 성도 교회(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컬트 추종자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용어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그레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 이상을 보고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보라고 충고합니다. 그는 디도에게 이 사람들에게 대해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그들이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의해 더러워졌거나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들이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에게 정당하게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실격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adokimos*(ad-ok'-ee-mos)입니다.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위조 동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진짜가 아닌 동전. 또한 비겁하고 전투에 실패한 군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특정 직업이나 직위를 얻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섬기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제거되어야 합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hree things to highlight from today's passage.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Stopping the mouths of false teachers

It's easy to see why so many people today have problems with Paul. He is incredibly direct and to the point. Many today find Paul's bluntness offensive. Today we live in a world in which no one wants to confront anyone else or call them out for saying something nonsensical. This never bothered Paul. Paul knew that upsetting people or causing offence paled into insignificance behind the truth. If pastors or bible teachers deceive or do not speak the truth they have no place in the church. It's very simple. They may be "nice people," but they must not be allowed to speak in church.

We also need at times to think who else we allow to speak into our lives. Are we being influenced or wrongly instructed by false teachers. The internet and even Christian book-stores are full of false teachers.

I don't think we should necessarily stop these people from speaking, but we should stop ourselves from listening, reading or being influenced by them.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직설적이며 요점에 충실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무뚝뚝한 태도를 불쾌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과 대면하거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Paul 을 귀찮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진리 뒤에서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나 성경 교사가 속이거나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에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인터넷과 기독교 서점에도 거짓 교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거나 읽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Focusing on what is really important

There is a great danger that Christians in every age can become distracted. In Crete people were fascinated by Jewish myths and fables. They had allowed their interests in these things to carry them away from what was really important.

Today there are many things that can cause us to lose focus. For example many Christians get caught up in trying to work out how what is happening around us is linked to end time prophecy. Make no mistake the bible has much to say about the future. We may very well be living in the final days. So we should live expecting the return of the Lord Jesus Christ to be at any time. However exactly how the things taking place in the world today match with prophecy can only ever be speculation. Despite what some people claim we do not know when our Lord will return. Therefore far better to use our time to make sure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strong and also to be sharing the gospel with great intensity. Think about how eager we should be to reach the lost when the time could be short. Let us then focus on what is really important.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유대 신화와 우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점을 잃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종말 예언

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복음을 열렬히 나누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을 때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열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시다.

3 Words backed up by works

The false and dangerous teachers in Crete were convincing talkers. They said the right things and had the ability to influence and sway people. However Titus would be able to spot them easily. This was because their words were not backed up by the things they did. The fruit of their lives was rotten. What about us? Are we good talkers who produce little fruit. Good fruit should be the evidence of our genuine salvation. So my question for you today is are your good Christian words, thoughts or ideas backed up by works?

그레테에 있는 거짓되고 위험한 교사들은 말하는 자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동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Titus 는 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이 한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는 썩었습니다. 어떤 회사 소개? 우리는 작은 열매를 맺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좋은 열매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의 좋은 기독교 말, 생각 또는 아이디어가 행위로 뒷받침되는 것입니까?